

◆ 會員社 動靜 ◆

## LG產電(株), 中에 합작공장 건설

LG產電(株)(代表:李鍾秀)가 빠르면 올 상반기중 중국에 현지생산을 위한 합작공장 건설에 나섰다.

LG산전은 중국 부동산개발업체인 大連萬達集團과 70대30의 비율로 총자본금 1천2백만달러규모의 大連LG產電有限公司를 설립키로 계약을 체결, 올 상반기중 공사에 착수해 오는 97년부터 산업용 전력전자기기의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LG 지분 총 8백40만달러(약 60억원)중 7백80만달러는 LG산전이 60만달러는 LG상사가 각각 출자하게 되며 중국측과의 합작기간은 50년으로 대표이사는 중국측이 담당하게 된다.

LG산전이 중국 省 大連市 經濟技術開發區에 올해부터 5년간 총3천만달러를 투입해 건설에 들어갈 大連LG產電有限公司는 제어부품·전자식안정기 등 전력설비와 자판기·냉동냉장쇼케이스·전동공구 등 서비스산업기기, 그리고 주차설비 및 논리연산제어장치(PLC)등을 생산, 중국시장 및 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지역을 대상으로 판매에 나서게 된다.

LG산전은 이에따라 사업초기의 경우 중저가 제품을 위주로 생산, 마케팅전략을 마련하고 본래도에 오르는 오는 2000년부터는 고가제품 위주로 생산 및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LG산전은 당초 엘리베이터의 중국 대련 현지공장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엘리베이터부문의 특허권자인 日히타치社의 강력한 반대로 현지법인의 생산품목을 전격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내 산업용 전력전자기기 시장은 고가제품의 경우 머린저런·텔레메카니크·日후지전기가 장악해 왔으며 저가제품의 경우 중국업체들이 자체 생산에 공급해 왔다.

LG산전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키로 한 세계화전략의 하나로 중국내 생산기지 구축을 통해 현지 수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 現代重工業(株), 765kV급 송전 철탑 수주

現代重工業(株)는 단일 철탑공사로는 국내 최대규모인 7백65kV급 송전철탑 제작공사를 2천5백 억원에 韓國電力으로부터 수주했다.

총 8만7천7백50톤 규모인 이 송전철탑공사는 국내 정격전압 3백45kV를 7백65kV로 승압키로 한 데 따른 1차분 6백86기중 4백84기 물량이다.

이 철탑은 98년까지 1차 승압구간인 당진~신서산, 신서산~신안성, 신태백~신가평등 3개지역 2백35km구간에 설치된다.

이 철탑은 7백65kV의 고압송전용이기 때문에 중전에 비해 6배의 전력을 수송할 수 있고 높이도 4배 크기인 1백m의 초대형으로 제작된다.

따라서 철탑의 외력 풍압력 송전선의 장력등도 동시에 높아져 그동안 제작해 오던방식과는 다른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

現代重工業은 이를 위해 그동안 7백65kV의 실규모 실증시험탑에 대한 하중 파괴시험탑에 거쳐 실증시험철탑 2기를 제작했다.

## 新亞電氣工業(株), 中國에 합작공장 설립

중전기전문업체인 新亞電氣工業(株)(代表:趙俊英)는 국내시장을 탈피, 거대한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 하남성에 합작공장을 설립, 중국시장 개척에 나섰다.

동사는 최근 중국 하남성의 협력전기와 55대45의 비율로 자본금 80만달러의 합작법인 「新力電氣」를 세우고 오는 3월께 본격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지에 각종 가스개폐기류와 컷아웃스위치(COS)를 수출해온 신아전기는 이로써 해외생산기지를 마련, 효과적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됐다.

대지 2천여평 건평 6백평 규모의 이 공장에서는 연간 40억원상당의 COS 인터럽터(기중부하개폐기)를 생산하게 되며 우선 중국장강댐 건설프로젝트에 공급할 예정이다.

## 日洋電機, ISO 9002 인증 획득

日洋電機(代表:徐廷柱)는 1966. 10 백동전기 기업을 전신으로 1968. 4 일양전기로 회사명을 개칭 이후 지난 30년 동안 전기용접기 및 전기용용기기 전문 생산업체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1995년 2월부터 12월까지 국가의 세계화 추진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I.S.O 품질시스템 인증을 위해 사장 이하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인 결과 1995. 12. 29부로 I.S.O 9002, K.S.A 9002을 인증 획득하였다.

이는 급변하는 국내의 고객의 요구사항 및 국가의 수출환경(W.T.O)에 적응하기 위해 품질 우선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회사를 이루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여 원가절감과 부서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회사규격, 규정의 제1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서 국가의 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힘을 모아 미래의 세계화에 산업첨병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생산, 사무자동화, 신제품개발에 이익의 과감한 재투자 방침에 의거 금번 품질인증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동사는 회사의 최대 이윤창조를 통해 최상의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고 품질보증 활동을 통해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여 모든 시스템 운영을 고객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것이며 당사의 개발실에서는 초절전형의 세계적인 신제품을 개발하여 다양한 제품의 양산체제를 갖추고 끊임없는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힘을 기반으로 각종 제품(AC용접기 3.5KW~30KW, DC용접기, DC인버터 150A, 300A, 알콘용접기 10.30, 복수용접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표이하 전직원이 질적향상과 생산의 효율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회원업체 KS 표시 획득 현황

업체명	허가번호	규격번호	규격명
동방전기공업(주)	제95-03-039호	KSC 8330	가스(SF6) 절연부하 개폐기(가공형)

## (株)光明機電, ISO 9001 인증 획득

(株)光明機電(代表:張淳明)은 국내 최고권위의 인증기관인 한국품질인증센터(KSA-QA)로부터 1995년 12월 22일자로 진공차단기, 기중차단기, 부하개폐기, 자동절체개폐기, 전철용차단기 및 보호기기의 설계, 개발, 생산 판매 및 서비스에 대하여 ISO 9001 품질보증체제 인증을 획득하였다.

1968년 창립 이래 중전기분야의 차단기 전문생산업체의 선두주자로서 축적된 기술과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며, 안심하고 쓸수있는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이번 인증획득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동사는 인증획득을 계기로 97년도 중전기 분야의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전문화된 중전기 분야의 LEADING COMPANY로 성장하고자 더욱더 품질경영체제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 안 내 ◎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해 파견한 「대일 전력기자재 수출 촉진단」 파견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 중부전력 및 큐수전력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입수 하였는 바, 회원업체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 ■ 입수 자료명

- 일본 중부전력 자재납품회사 및 건설 청부회사 명단
- 일본 큐수전력 납품희망업체 등록서류 양식 등

※ 자세한 내용은 진흥회 국제과(TEL : 424-4901)로 문의바람